

나를 찾아가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2020년 6,7월호

1. 전 학년 등교 개학 시작

2020년 6월 3일 수요일, 드디어 1학년이 등교했다.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학교의 교문을 지나, 교실로 들어가는 데 무려 3개월이나 걸렸다. 신입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야 새 교복을 차려 입고, 각자의 반으로 향했다. 온라인 개학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과 같은 반 학우들을 온라인에서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실제 만남은 오늘이 처음. 등교하자마자 학급 조회를 하고, 1교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3학년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서 이것저것 더 챙겨야 할 게 많아졌다. 게다가 첫날부터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등 각 종 검사를 한꺼번에 실시해야 했기에 하루가 더욱 정신없이 지나갔다.

일단 등교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럽다. 앞으로 1학기는 3학년은 계속 등교하고, 1, 2학년은 격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교육청 지침도 수시로 변경, 수정되어 내려오고 있는 실정. 계속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일이고, 걱정되는 일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 또한 잘 넘겨서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모두가 함께 코로나 19를 물리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때다.
2020-06-03

심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올해는 교실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쾌적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일 것이다. 현재 각 학급에는 마스크, 손 소독제, 소독 티슈, 장갑, 개인용 쓰레기 봉투 등 각 종 방역 물품들이 배부된 상태다. 각 교실에 비치된 휴지통엔 모두 뚜껑을 달았고, 공기청정기는 우선 비닐로 잘 싸 두었다. 환기를 자주 시키고, 책상도 잘 닦고, 친구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멀리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코로나 19 전파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모두를 지킬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때임은 분명하다.

▷교실 풍경: 코로나 19에 학교의 모든 일정, 계획들이 계속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도 여름은 돌아왔다. 이제는 날씨가 더워져서 교실에서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에어컨 가동을 하되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낀 채로 수업을 받고, 선생님들 역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한다. 마스크를 낀 채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도 몹시 곤혹스러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 일부는 어지러움증, 과호흡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교사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50분 수업을 하는 데 숨이 너무 차고, 목소리 전달도 잘되지 않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 목에 무리가 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0-06-05

2. 코로나 19가 바꾸어 놓은 우리들의 일상

▷학생 자가 진단: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아침 등교 전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하고 있다. 물음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여 등교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등교 중지 대상자 현황 알림: 매일 아침 모든 교직원에게 등교 중지 대상자 현황에 대한 알림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발열, 인후통 등 각종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주 작은 증세에도 촉각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건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중이다. 모든 교사가 돌아가며 아침 등굣길과 점심시간에 학생들 발열 체크를 돕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체크하고 있다.

▷학급 임원 선출: 올해 1, 2학년 각 학급 임원 선출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MSTeams를 통해 각 학급 학생들이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추천도 받고,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반장, 부반장을 뽑고, 각 학급에서 도맡을 역할을 분담했다.

▷점심시간 학생 식당: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기 전 학생 식당에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었다. 마스크를 낀 채 받는 수업의 피로도를 줄이고, 점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업을 50분에서 45분으로 단축했다.



▷환경미화: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했으나, 각 학급 환경미화



3. 학사일정 변경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3학년 학력평가	2020년 7월 8일(수)	2020년 7월 22일(수)
1학기 중간고사	2020년 4월 24일(금) ~ 4월 29일(수)	[3학년] 2020년 6월 1일(월) ~ 5일(금) [1,2학년] 2020년 6월 19일(금) ~ 25일(목)
1학기 기말고사	2020년 6월 29일(월) ~ 7월 2일(목)	2020년 7월 27일(월) ~ 31일(금)
2021 수능능력 시험	2020년 11월 19일(목)	2020년 12월 3일(목)

4.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치르는 1학기 중간고사

1,2학년 중간고사가 시작되었다. 격주로 등교하며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던 터라 심적 부담이 어느 때 보다 심했을 학생들이지만, 각자 나름의 계획을 세워 열심히 준비했고, 첫 시험에도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신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 신입생들은 긴장한 모습이 엿보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무사히 중간고사를 마칠 때가 되면, 수도권 지역 코로나 확진자도 0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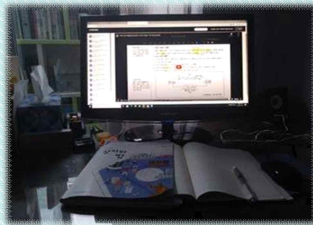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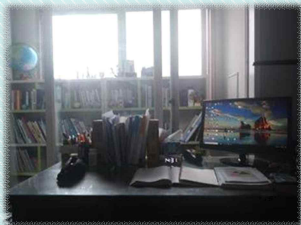
2020-06-19

1학기 중간고사가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3학년은 매주 등교하고 있지만 1, 2학년은 다음 주부터 또다시 격주로 등교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런 형태의 등교는 1학기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는 1학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 수칙 지키기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PC방, 노래방, 영화관 좀 제발 가지 말자.

2020-06-25

5. 온라인 수업으로 하루를 보내며

2020년 7월 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이 시간대에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로 몹시 분주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나의 일상은 변화했다.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켜고 조화를 한다. 이번 주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 1교시부터 차례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강의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신 흔적들이 여기저기 묻어났다. 그렇게 열정적인 수업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을 쏙살같이 흘러 7교시가 되고, 자체적으로 하교를 한다. 코로나 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이런 생활도 나름대로 잘 적응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0-07-05, 20302 김도현 기사

6. 코로나 19 소식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발표했다. 2020년 6월 26일 현재,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16명, 해외 유입이 12명이며, 대구 지역의 확진자는 사흘째 0명이다.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집단 감염 소식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서대문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등교 중지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 5월 초, 확진자가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확진자는 다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7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에 한숨도 지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인지 시험하는 듯 날개를 꺾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원망할 힘조차 잃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확진자 0명'이라는 숫자를 간절히 기다린다. 여전히 방심은 금물.

2020-06-26

7월 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이다. 지역 감염이 43명, 해외유입 18명이다. 이로써 총 확진자수는 13,091명.

사망자는 283명이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부 변이그룹인 GH형의 경우 전파력이 6배나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5월 초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유행부터 발견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이 GH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종교단체의 집단 감염을 비롯해 사찰, 교회, 방문판매업체, 요양 시설들을 통해 광주, 대전에서의 지역감염도 확산 중이다.

2020-07-05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미국은 다시 봉쇄령을 내렸다. 경제 재가동을 없던 일로 하고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는 주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7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1명이다. 해외유입 47명, 국내 발생 14명으로 총 확진자수는 13,612명이다.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해외 유입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 광주 요양원에서 첫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틀 동안 30명대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수는 다시 60명대가 되었다.

2020-07-16

7. 홍완원 관리장님 정년 퇴임식



1989년에 처음 우리 학교에 오셨던 홍완원 관리장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근무하신 홍완원 관리장님이 계셨기에 그동안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관리되고, 빛날 수 있었다. 그는 우리 학교의 맥가이버이자 슈퍼맨이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한 교직원들은 영광스러운 퇴임식에 참석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렸다. 관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2020-06-30

8. 학교 홍보영상 촬영 현장 스케치

7월 10일 금요일, 우리 학교 홍보영상 촬영이 있었다. 2학년은 등교하지 않는 주였지만, 영상 촬영 및 출연을 위해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다. 재학생, 선생님들은 물론 졸업한 선배님, 외국인 선생님들도 촬영에 함께해 주셔서 더욱 빛나는 학교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 열심히 준비했고, 영혼까지 갈아넣은 연기력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촬영에 임해 준 만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무척 기대된다.



2020-07-10, 20102 강훈민 기사

9. 2019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 운영 3년 연속 우수학교 선정

우리 학교가 사회통합 전형 프로그램 운영 부분 3년 연속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과 멘토링, 입시코칭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얻은 쾌거다.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 주셨던 2019년도 대외협력부장 안충모 선생님께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셔서 기쁨과 영광이 두 배가 되었다.

2020-06-23



10.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었다. 중간고사와 달리 기말고사는 1~3학년 모든 학년이 같은 기간에 실시된다. 중간고사가 끝난 뒤 한 달 만에 치르게 된 기말고사라 학생들의 심적 부담이 꽤 컸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별 탈 없이 한 학기를 잘 보내준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무리 시험 역시 잘 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아낌없이 응원한다.

2020-07-27

12. 코로나 시대에 여름방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곧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기간은 8월 7일 방학식을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총 9일이다. 짧아도 너무 짧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1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학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방학 기간에도 거리두기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방학을 보내기 위한 각자의 계획을 세워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어야겠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수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해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올해 되도록 참아보자.

2020-07-31



11.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발전기금 기부



2020학년도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해 주셨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기부금을 마련해 주신 만큼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위해 소중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겠다.

2020-07-22

자율형 사립고 경희고등학교

